"도전정신으로 무장…기회가 오면 반드시 잡아라"

김응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이 14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용봉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전남대 용봉포럼'에서 '세상은 나의 보물섬이다'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세계 1위 규모 의류 제조·수출기업 성장 비결은

김응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 전남대 용봉포럼 특강
인재 양성·사회공헌 기업 존재 이유…네트워크 강조
코로나때 美방호복 수주…"건강한 기업은 국가 국력"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희망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14일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용봉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전남대 용봉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김응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은 '세상은 나의 보물섬이다'란 주제 강연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회장은 인간의 내면은 '희망자아(목표 설정·성취)'와 '상실자아(목표 상실·좌절)'로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인류에 헌신하기 위한 것은 물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가 각 부문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라고 정의했다.

김 회장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은 사람으로, 인재경영이 곧 기업경영이다"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장 지향적인 습득형 인간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생의 목표 설계·달성을 위해서는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정신, 창조적인 사고, 희생정신이 필요하다"며 "'누군가는 곧 나를 추월할 것이다. 나는 추락할지도 모른다'란 위기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기업의 생존 원칙은 '창조적 파괴 활동'으로 마차, 만년필은 발명을 통해 자동차, 볼펜으로 입지가 좁아졌다"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생을 살면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이동 제한, 의류 판매량 감소, 주문 취소로 이어져 글로벌세아의 미래가 불안했지만 지인으로부터 미국 연방정부가 방호복, 면 마스크를 대량 발주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곧바로 공장, 원자재를 확보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방호복 3000만장과 면 마스크 2억장을 수주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해진 운명은 없다. 오로지 내 자신의 선택만 있을 뿐 행복과 불행은 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며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패배는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편안함보다 도전이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2010년 5월 미국 정부로부터 같은 해 1월 진도 7.0 지진이 발생한 아이티공화국에 공단 설립 제안을 받았다"며 "4개월의 고심 끝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세아상역 공장과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해 100% 무상교육을 시행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경영자가 성장과 발전을 하지 않으면 기업은 도태된다"며 "글로벌세아는 테그라(Tegra)와 스위스텍스를 인수해 글로벌 스포츠, 기능성 의류 시장에서의 경쟁력 높였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 회사를 인수해 세계 각국에 현지법인과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하고 훌륭한 기업은 국가의 국력이며,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늠자다"고 진단했다.

한편 김응기 회장은 1974년 전남대 섬유공학과(70학번)를 졸업하고, 1986년 '세아상역'을 설립해 의류 제조·수출 기업을 세계 1위 규모로 성장시켰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사랑애서포터즈 60만 돌파
도, 캠페인 등 전방위 홍보 성과

전남 발전과 고향사랑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27)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60만번째 가입자로 등록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특산물 판매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운영을 시작했다. 가입자에게는 전남 도내 관광지,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등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남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

전남도는 향우회 대상 도정설명회와 정책비전투어 개최, 도-시·군 서포터즈 모집 캠페인, 서포터즈 신규가입자와 추천인에 경품 지급하는 일촌맺기 이벤트, 진해 군항제 등 전국 대표축제 참여, 민간플랫폼과의 협업을 비롯해 온라인 매체홍보 등 전방위적 홍보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 22개 시·군의 협조와 도내 상인연합회, 숙박업협회 등 7개 협회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 수도 연초 230여개에서 846개까지 늘리며 서포터즈 혜택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박정렬 기자

광주경총, 17일 조석준 기상전문가 초청 금요포럼

'기후변화시대의 기상기후 비즈니스 전략' 주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오는 17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기상전문가 조석준 회장을 초청해 '기후변화시대의 기상기후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제1700회 금요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석준 회장은 현재 레인버드지오 회장으로 국내 최초 KBS 기상전문 기자와 제9대 기상청장, WMO(세계기상기구) 집행 이사를 역임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조 회장은 기상위성의 역사, 최신 기후변화, 날씨와 기후의 차이점 및 기후변화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기상은 생명이며 일기예보는 인류 협업 발명품 같은 것"이라며 "최초 기상 전문기자로부터 고차원 기상기후 글로벌 서비스와 일기예보의 첨단 위성 서비스 시대를 들어보면서 하늘로 우주로 이제 우리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요조찬 포럼 참석 및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회원사업부(062-654-3426)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전남도, 지역경제 발전 기여 중소기업 선정

22일까지 접수…이자 지원 우대 등 혜택

전남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중소기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영이 건실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 2007년부터 중소기업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4개 기업을 선정해 대상·금상·은상·동상을 수여하며, 선정기업은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으로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을 달성한 업체,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을 선도하는 업체, 노사분규·임금 체불이 없는 업체 등이다.

전남도는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해 상위 10개 이내 기업을 선정하고, 2차 중소기업 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신청 접수는 22일까지며, 기업은 시·군 또는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방문 또는 우편(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2층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53)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

주얼리로 화려한 가을 연출 광주신세계 본관 3층 '비비안 웨스트우드' 매장에서는 큐빅으로 꾸며진 '오브'와 고급스러운 펄로 제작된 '미니 바스릴리프 초커 목걸이'와 볼드한 느낌으로 착장에 포인트가 되는 '원로우 펄 바스 릴리프 초커 목걸이' 등 가을 착장에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패션목걸이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